

기획

■ 승효상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특별 대담

인구밀도 낮은 광주, 자연친화적 '가든시티' 만들어야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로 추진된 어번폴리를 계기로 광주 도심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15년까지 200여억원을 투입, 총 100개의 어번폴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성과주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1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행정지원센터 '제문헌'(提文軒) 회의실에서 어번폴리를 첫 기획한 승효상 감독과 함께 '광주의 도시 디자인과 건축' 등을 논의하는 집중 인터뷰를 가졌다.

대담=문화부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광주는 도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건축가로서 본 광주의 도시 디자인과 건축은 몇 점이다.

▲낙제다. 광주라는 도시의 구조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많다. 서울의 디자인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지방의 쓸데없는 콤플렉스'에 그치고 있다. 도시 디자인은 외형에 있지 않다. 도시는 모르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다. 농촌은 혈연이나 친분이 의지해 살아가는 곳인 반면, 도시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한다. 그 법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광장이나 도로 같은 도시 공공영역이다. 이 공공영역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등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 꾸미는데 치중하고 있다.

-광주의 도심 풍경은 구도심(금남로)은 텅 비어있는 반면, 신도시(상무지구)는 무분별하게 개발돼 있는 기형적인 모습이다. 광주의 도시 계획은 어떠한가.

▲도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상무지구는 잘못된 도시 계획의 종합판이다. 서양인이 만들었던 도시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환경을 짝 쓸이하듯 지워 오래된 문화를 유산하는 일은 이미 서양에서는 폐기된 방법이다. 또 상무지구는 차량의 통행만 가능하고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도심의 용도에도 문제가 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밤이 되면 유흥업소와 안마사술소만 불을 밝히는 이상한 구조다.

-사직공원에 현재 설치된 가로등만 7종류다. 각각 다른 발주처가 별개의 공사를 벌인 결과다. 도심 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총괄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인 시장 선거에 건축가가 러닝메이트로 나온다. 정치·행정적 마지막에 남는 게 건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덜란드도 국가건축가를 뽑아 그 사람이 설계자를 장려하는 등 모든 건축 행정을 맡긴다. 서울에서도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도시 풍경이 파편적인 이유는 여러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한 사람, 토목을 담당 한 사람, 간판을 다는 사람 등이 따로이기 때문에 개조할 수 없었다. 단기적인 디자인 건축 선진국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계획부터 시행까지, 심지어 길거리에 쓰레기



지난 1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행정지원센터 '제문헌'(提文軒) 회의실에서 승효상 감독과 광주일보 문화부 김미은 부장이 도심 디자인과 건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승 감독이 설계한 이 건물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넓은 창을 냈고,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등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광주향교·양림동 골목길·이장우 가옥

공간 구성 매우 좋아 디자인 자산 충분

통까지 함께 디자인하는 완벽한 '디자인 실명제'이다. 이래야 전체가 조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위해 단기적·장기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디면.

▲시청의 건축직은 대부분 하위직이며, 최고가 국장급이다. 만약 소꿉이었던 콜롬비아 할렐가 메대인이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수준 높은 건축물을 세워 활력 넘치는 도시로 개조할 수 있었다. 단기적인 디자인 변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건축적 부시장이 꼭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광주 도심에 대한 비전을 그려야 한다. 광주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도심

에 큰 산이 무등산이 있고, 광주천이 있다. 인구밀도도 낮아 자연 친화적인 '가든시티'가 가능하다. 도시와 농촌이 종속적 관계가 아니다. 농촌적 도시도 가능하고, 도시적 농촌도 있는 것이다. 광주는 농촌적 도시 개념인 '가든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간간히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미래 도시의 디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인간이 정주(定住)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도시 유목민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된다. 활활하 하이데거는 '사람은 거주함으로써 존재한다. 그 존재는 건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도시 건축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해주는

어번폴리는 공간 이해 건축가가 설계

전담조직 구성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것이다. 유목민처럼 사람을 내모는 것이 아니다. 정주하는 도시는 안전하고, 쉽게 원하는 곳을 찾고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나쁜 도시는 문화를 즐기게 하기 위해 1시간을 나가야 하지만 정주하는 도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에서 문화를 맛볼 수 있다. 자기가 있는 주변 자체가 전체 도시의 가치와 맞먹는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도시가 민주적인 도시다. 반면, 봉건적인 도시는 계급적으로 건축물이 분화돼 있는 걸 말한다.

-광주 도심의 디자인적 가치는 없는가. 텅 비어있는 구도심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건축 30선을 뽑아 책으로 내려고 했

는데, 시간에 쫓겨 출간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 지의 내에서는 역사적인 유적이 많지 않다. 하지만 광주향교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공간 구성이 매우 좋다. 또 양림동의 골목길과 나가야 하지만 정주하는 도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에서 문화를 맛볼 수 있다. 자기가 있는 주변 자체가 전체 도시의 가치와 맞먹는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도시가 민주적인 도시다. 반면, 봉건적인 도시는 계급적으로 건축물이 분화돼 있는 걸 말한다.

-광주 도심의 디자인적 가치는 없는가. 텅 비어있는 구도심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광주·전남의 건축 30선을 뽑아 책으로 내려고 했



■ 승효상은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한 뒤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문하에서 실무를 익혔다. 지난 2002년 건축가로써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뽑혔고, 2008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았다.

중국에 진출해 베이징 첸먼지역 30만㎡를 재개발하는 설계프로젝트를 따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설계했다. 그의 건축론 '빈자(貧者)의 미학'은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노출콘크리트와 내후성 강판은 승효상 건축의 트레이드마크다.

건이 걸리기도 한다. 시가 어번폴리 100개를 만든다는데, 첫 기획자로 당부할 게 있는가.

▲시간을 오래 두고 추진해야 한다. 설계 예산으로 내년에 세울 어번폴리를 설계하고, 전년도에 설계한 어번폴리를 올해 세우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그 래야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가를 간의 워크숍도 할 시간이 생긴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광주를 이해하고, 현장의 리얼리티를 체득할 수 있게 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또 어번폴리를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 어번폴리는 조형이 아니라 건축이다. 그 안에 기능이 있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담겨있다. 이 때문에 어번폴리는 공간을 이해하는 건축가가 설계해야 하며 전담 조직을 만들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향후 비엔날레가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이번 전시는 비엔날레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도 느낀 부분이 있다. 최근 비엔날레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비엔날레를 엑스포와 페어로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페어나 엑스포는 제품이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이지만 비엔날레는 개념을 제안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그걸 보여줬다. 앞으로 비엔날레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Europe, East Asia, China, Japan, and the US/South Korea. It includes details on flight times, prices, and special offers.

■ 상담 및 문의처 ▶ 광주권: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첨단/상무/월드컵/수원점), 운암점, 북구점 ▶ 전북권: 롯데백화점 전주점, 롯데마트(전주/군산/전주덕진), 전주중앙점, 익산점 ▶ 전남권: 롯데마트(여수/여천), 순천점